

# 108산사...팔정도 구체화한 획기적 실행

## 108산사순례회 7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열려

한국불교 실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온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7주년을 맞아 성과와 새 방향을 짚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선묵재가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회장 혜자, 도선사 주지)는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학술세미나장에는 108산사순례회 회원 200여 명 등 400여 명이 운집했다.

2006년 9월 도선사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순례를 진행해온 108산사순례회는 현재 84차까지 순례를 진행했다. 108산사순례회 회원은 1만여 명으로 매 순례마다 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동참인원만도 약 85만 명. 108산사순례회는 성지순례 뿐만 아니라 선행과 보시를 펼치는 보현행원을 실천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25억 원이 넘게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농어촌 사랑을 실현했으며 매 순례마다 인근 군부대에 장병사랑 초코파이를 전달해 지금까지 총 370만 개 이상을 제공했다. 다문화가정 150쌍과 결연을 맺었으며 매년 친정자들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소년소녀 가장 돕기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 등 선행보시의 새 장을 열었다. 최근에는 부처님 탄생성지 톨비니동산에서 평화의불을 채화해 순례 사찰 마다 분들을 하고 북한 지역에도 불을 보내는 등 남북평화와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1부 기념법회와 2부 학술논찬회가 열려 108산사순례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2년 동안의 순례의 과제와 한국불교 순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혜자 스님은 “9년간 대장정의 서원 이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결성하고 대정정을 나선 까닭은 오직 신심의 발로였다”며 “은사 청담 큰 스님의 서원을 이어 받아 보현행원의 서원을 다시 세워 108순례 회향때까지 정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자들 “참화와 보시실천 대중화 계속해야” 2부 학술논찬회에서는 학자들이 대거 발표자로 나섰다.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사회 하에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총평을 맡았다.

첫 발표에서는 108산사순례 전개과정에 참여한 정성욱 시인이 그동안 활동과 의미를 설명했다. 정성욱 시인은 108산사순례

### “대중화 위해선 사찰 주제별 특화”

매년 관심 주제 선택, 성공 비결

가족 중심의 새 실행 문화 개척

가 보현행원의 실천으로 단순한 순례를 넘어 선행보시의 새 장을 열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영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108산사의 한국불교사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 △참화와 기도의 내적 순례문화 제시 △기부와 보시문화 구체화 △평등의 불교공동체 모델 제시 △부모와 자식의 윤리관식 환기 △다문화가정 섬서문화 기어 △지역 농가 활성화 이바지 △남북 통일 밑거름 확보 △적극적인 불자역시 고취 등을 들었다. 또 108산사순례의 ‘참화’, ‘사랑’, ‘인연’, ‘효행’, ‘장학’, ‘보시’, ‘구매’, ‘권진’의 행법은 팔정도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고 교수는 108산사순례회의 모델이 대

중화되기 위해서는 108사찰 선별을 주제와 내용별로 특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선사 측이 108산사순례 이후 33관음도량 순례 등을 지속해 대중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규리 동국대 선행과 강사는 108산사 순례회의 기도형태가 ‘제법공성’, ‘불이사상’, ‘반야지혜’라는 대승사관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108산 사순례회가 펼치는 다양한 사회사업활동의 배경에는 대중의견을 수렴해 실천하는 순발력과 결단성이 있는 실행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바로 지금 여기”의 중요



혜자 스님과 108산사순례회 회원들이 순례하는 모습(사진 위)과 9월 15일 열린 7주년 기념학술세미나 모습(사진 아래)

중화되기 위해서는 108사찰 선별을 주제와 내용별로 특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선사 측이 108산사순례 이후 33관음도량 순례 등을 지속해 대중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규리 동국대 선행과 강사는 108산사 순례회의 기도형태가 ‘제법공성’, ‘불이사상’, ‘반야지혜’라는 대승사관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108산 사순례회가 펼치는 다양한 사회사업활동의 배경에는 대중의견을 수렴해 실천하는 순발력과 결단성이 있는 실행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바로 지금 여기”의 중요

한 관심사를 매년 주제로 선택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도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는 108산사순례가 여성 위주의 실행이 아닌 가족, 특히 청소년의 참가로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108산사순례회의 실행이 마하뜨마 간디의 공동체 운동인 ‘사띠아그라하’와 버금가는 21세기 보살운동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러한 운동은 내적인 참화와 서원의 여행으로 회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com

## 학술·문화재소식

### 일본불교사학, 일본불교 합동세미나

9월 28일 군산 동국사 및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동국대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는 9월 28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2층 규장각에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일본불교’를 주제로 한일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제1부 군산 동국사 한일합동법회를 시작으로 경술국치 103주년 추념 특별기획전 관람, 오후 1시 한일합동 학술세미나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박진석 군산 문화체육과장의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그 활용’ 기조발제에 이어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

수의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다이토우 사토시(大東仁)의 ‘초기 조선국 부산개교’, △한상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의 ‘한국 근대 불교와 오쿠무라 엔신(奥村圓心)’, △이치노헤 쇼고(一戸彰晃)의 ‘유목에 나타난 일본 고승의 군국주의 연구’ 등이 발표된다.

원평에는 제정승 동서대 교수, 이태승 위덕대 교수, 원영상 원광대 교수, 김춘호 원광대 강사 등이 나선다. (063)443-8283

노덕현 기자

### 금강대,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우수대학

3단계 계속과제 선정 및 향후 4년간 40억원 지원 받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에서 시행중인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이 한국연구재단 단계평가에서 3단계 계속과제로 선정됐다. 또, 우수평점을 받아 인센티브 5%를 포함해 향후 4년간 40억원을 지원 받는다.

금강대는 “한국연구재단 종합평가의견에 따르면 2단계 사업이 원만히 수행돼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2단계 연구실적들은 대부분 학술적 의의·가치가 매우 높아 관련분야에서 모범적

연구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연구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문한국(HK) 지원사업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은 16개 연구소로, 금강대 외에 강원대, 고려대, 부산대, 부산의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순천대, 인하대, 이화여대, 한림대, 한양대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금강대가 우수 평가를 받아 상위 2개 연구소에 주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반야학술상 공모

지역·논문 분야...9월 30일까지 접수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제3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박관연, 박문현)는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반야학술상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지역(著譯)과 논문(論文) 분야로 각 400만원의 연구비가 수여된다. 지역상은 저술과 번역서

를, 논문상은 학술지(동아시아불교문화)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다.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간(발표)된 저서 및 역서, 논문이 대상이다.

지원 및 추천 마감은 9월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홈페이지(www.easternasia.kr)를 참조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 “삼법인(三法印) 용어 부파불교 시대 나와”

### 김한상 박사,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의 첨단연구’ 세미나서

불교의 근본교인인 삼법인, 혹은 사법인이 부파루고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상 박사(캘리포니아대학교 팔리불교학)는 9월 14일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가을논문발표회에서 ‘법인’의 용어가 부파불교와 중국 교상판석 과정에서 정착됐음을 주장했다.

김한상 박사는 “인도대륙에서 활동한 스승과 대승의 부파들은 대외적으로 동시대

의 여러 인도사상들과 경쟁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 내부적으로도 각 파간에 치열한 이론투쟁을 전개했다”며 “때문에 ‘법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파의 사상을 선양하고 불설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 교상판석(敎相判釋)을 통한 교리 분석이 치열히 전개됐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의 필요성

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반면 상좌부에서는 지역적으로 고립된 스리랑카에 정착되며 안정적인 수행과 교학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략카냐’라는 용어를 통해 초기불교의 무상·고·무아의 법칙을 수행과 결부시켜 해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설일체유부가 고를 제외한 삼법인을 실천 이유는, 붓다도 때에 따라서는 고를 제외하고 무상과 무아만을 설하였듯이, 무상·고·무아는 긴밀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라며 “삼법인과

사법인에 불교의 핵심 사상이 무아가 그대로 유지된 점은 무아의 가르침이 없는 것은 불교가 아니며,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해탈의 도정에서 어떠한 진보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이들도 간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상좌부의 삼상과 공상, 그리고 북방불교의 삼법인과 사법인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며 “설일체유부의 삼법인은 무상·무아·열반이기 때문에 삼상이나 공상과 같은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법밀종 ‘법화경과 밀교신앙’ 학술세미나

9월 28일 동국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법밀종 중앙회(법주도명)는 9월 28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법화경과 밀교신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사회 하에 △정성준 동국대 강사의 ‘중

국불교의 천태사상과 밀교의 교섭’, △차차서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법화와 밀교, 그 만남의 가능성’, △이성은 동국대 강사의 ‘법밀 수행 의례 시론’ 등 다양한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 금강산 건봉사 10월 26일 (토) 가을산신 대제

남한에서 가볼 수 있는 유일한 금강산,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는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는 민통선 최북단에 위치한 호국불교의 상징으로서, 아름다운 산세와 바다가 어우러진 천년 고찰입니다. 온갖 천지 만물 자연의 생명력이 왕성한 금강산 건봉사에서 매년 봄, 가을 산신대제를 여법하게 봉행하여 왔습니다. 금년 가을 산신대제는 신명나게 봉행하여 금강산 산신님을 감동시켜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발원, 사업번창, 시험합격, 득남득녀, 좋은 인연 등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일시와 같이 성대히 봉행 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금강산 건봉사 가을 산신대제” 일정

- 일 시 :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10:00
- 장 소 : 금강산 건봉사 산신각
- 동참금 : 한가족당 5만원 (계좌번호: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지금 접수하시면 산신대제 날까지 매일 축원해 드리며, 산신대제 후 일주일 동안 특별 축원합니다.

- 접수문의 : 전화 033)682-8100~2 / 팩스 033)682-5994 www.geonbongsa.org
- 차량문의

서울 : 건봉사 중무소 : 033)682-8100  
 부산 : 금강정진회 : 051)635-7878  
 부산 : 자비정진회 : 011-883-8868  
 울산 : 태진관광 : 010-8551-9378  
 대전 : 귀빈관광 : 010-9415-8777

서울 : 지장사 : 02)488-0180  
 부산 : 뉴엔젤 여행사 : 010-4243-9052  
 울산 : 연꽃불자회 : 011-862-9191  
 대구 : 청정심보살 : 010-5165-2915  
 포항 : 청록관광 : 010-3512-3969



부산 : 불광회 박가사 : 011-855-8741  
 광주 : 정길태 : 011-604-2377  
 창원 : 성산보현회 : 010-4570-9301  
 마산 : 보현경보살 : 010-6762-3962

- ※ 지방은 각 지역별로 접수 출발하고 서울은 10월 26일 서울 조계사에서 당일 아침 6시40분에 출발합니다.
- ※ 산신대제 동참하실 분은 당일엔 복잡하오니 미리 중무소 033)682-8100~8102번으로 전화 접수바랍니다.

금강산 건봉사 “단풍이 관찮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적멸보궁 乾鳳寺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동행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리어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8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